FX Market Daily

2026-08-04

전일동향	전일대비 6.00원 하락한 1,429.5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424.00원(15:30 기준) 대비 13.50원 상승한 1,437.5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엔화를 떠받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개입이 환율 하방 재료로 소화되며, 전일 대비 6.00원 하락한 1,429.5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3.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6.3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37.50	1438.60	1425.00	1429.50	1429.90
엔화	911.16	921.25	906.26	906.32	-
유로화	1653.14	1671.43	1634.26	1634.26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1	-2.4	-6.51	-14.19
결제환율(수입)	-0.09	-1.13	-4.14	-10.2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회복에...1,42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29.80, 15:30 기준) 대비 0.55원 하락한 1,429.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에 제한적 하락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국제유가는 5% 가량 하락했고, 미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선호 심리가 유입되었고, 이는 원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금일 환율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추가 공조로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원화도 이에 동조하며 환율 하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 제조업 호조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달러 저가 매수세는 환율 낙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21.00 ~ 143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8220.2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55원↓
	■ 美 다우지수 : 53178.41, +693.38p(+1.3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05.0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57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